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223

JCCT 2023-7-26

##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정영미\*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는 교사가 인식한 교수 효능감, 행복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교수 효능감과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수 효능감과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관해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행복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과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교수 효능감은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행복감이 더해질 때 그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교사의 행복감이 모두 있을 때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은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의미 있게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perceived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purpose was to reveal that it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quality of action.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Korean Children's Panel 7th year (2014) data, and Pearson's momen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on teacher-infant and infant-infant interaction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teaching efficacy, teacher happiness, teacher-infant, and infant-infant interactions were all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teachers' teaching effic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infant and infant-infant interactions, and the influence increased when teacher's happiness was added. Therefore, we need to come up with a plan to increase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er happiness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quality of teacher-infant and infant-infant interactions can be meaningfully improved.

**Key words** : Teaching Efficacy, Teachers' Happiness, Teacher-Infant, Infant-Infant, Interaction

\*정회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접수일: 2023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5일

Received: May 15,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5, 2023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 Childc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 I.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다양한 가족형태와 맞벌이 증가로 많은 유아들이 가정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있다. 유아기는 생애 발달주기 중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의 긍정적 정서 발달은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또래와의 놀이나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2]. 이에 교사는 유아와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교사가 보이는 개입행동은 유아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으로 교사변인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하겠다[3]. 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유아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4].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얻는 양질의 경험들은 대부분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란 교사와 유아가 교육현장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과정과 방식이라 할 수 있다[6]. 교사가 유아의 정서를 지원하고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7, 8].

교사 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내적 특성으로 교수 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수 효능감이란 학습자의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9]. 교수효능감은 보다 다양해진 유아들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10, 11].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에게 보다 지지적이고 유아와의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최적 보상과 처벌을 빈번히 사용하며 유아와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12-14].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내적 변인으로 교사 행복감이 있다. 교사 행복감이란 개개인 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느끼는 심리상태를 말한다[16, 17]. 유아교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유아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된 정서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아 교사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17, 18]. 교사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상호작용 하고, 교사의 역할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의 행복감은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교사의 역할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교수 효능감, 행복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교수효능감, 행복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진행되었지만,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위 영역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교수 효능감과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유아-유아 상호작용에도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과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은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로 1,620명의 패널 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대해 모두 응답한 12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사연령은 20대가 581명(48.4%)으로 제일 많았으며 교사최종학력은 대학졸업 이상 635명(52.9%)이 전문대졸 566명(47.1%)보다 높았으며 교사재직경험은 어린이집 593명(49.4%)보다 유치원 861명(71.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교사연령	20대	581(48.4%)
	30대	386(32.1%)
	40대	194(16.2%)
	50대 이상	40(3.3%)
교사최종학력	전문대졸	566(47.1%)
	대학졸업 이상	635(52.9%)
교사재직경험	어린이집	593(49.4%)
	유치원	861(71.7%)

2. 측정도구

1) 교수 효능감

교수 효능감은 보육/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총 7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  $\alpha$ =.856으로 나타났다.

2) 교사 행복감

교사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매우 행복하지 않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  $\alpha$  =.817로 나타났다.

3) 교사-유아 상호작용

소속 담임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으로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예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등이고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예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등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Cronbach  $\alpha$ 는 .91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교수 효능감’ 평균은 3.892( $SD$ =.498), ‘교사 행복감’은 5.688( $SD$ =.836),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4.217( $SD$ =.534), ‘유아-유아 상호작용’은 4.332( $SD$ =.539)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교수 효능감	3.892	.498	.140	.092	
교사 행복감	5.688	.836	-.427	-.223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4.217	.534	-.328	-.259
	유아-유아	4.332	.539	-.482	-.303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1$ ). 교수 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  $r=.673$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 효능감과 유아-유아 상호작용에서는  $r=.612$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 행복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  $r=.451$ ,  $p < .01$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1	1			
2	.419**	1		
3	.673**	.451**	1	
4	.612**	.392**	.755**	1

(1:교수효능감, 2:교사행복감, 3:교사-유아상호작용, 4:유아-유아상호작용)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사 행복감과 유아-유아 상호작용에서는  $r=.39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모형 1 교수 효능감에서 약 45.2% ( $R^2=.452, F=991.627, p<.001$ )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모형 2에서 교사 행복감의 설명력이 약 3.5% 유의하게 증가하여 48.7% ( $R^2=.452, F=569.289, p<.001$ )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수 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행복감이 더해질 때 영향력이 증가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유아 상호작용은 모형 1 교수 효능감에서 약 37.4% ( $R^2=.374, F=716.853, p<.001$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2 교사 행복감은 약 2.2% 유의하게 증가하여 약 39.6% ( $R^2=.396, F=393.277, p<.001$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교수 효능감이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행복감이 더해질 때 영향력이 증가하여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종속 변인	모 형	독립 변인	B	$\beta$	T	$R^2$ (변화 량)	F
교사 유아 상호 작용	1	효능감	.722	.673	31.49***	.452	991.627**
	2	행복감	.629	.587	25.75***	.487 (.035)	569.289**
유아 유아 상호 작용	1	효능감	.662	.612	26.77***	.374	716.853**
	2	행복감	.587	.543	21.96***	.396 (.022)	393.277**

IV. 논 의

본 연구는 교사의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의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효능감과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수 효능감은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역할 수행 시 자신이 교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온정적이고 긍정적이며 반응적인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 한편, 교사 행복감에서도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유아에게 행동적인 반응을 하는 등의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19, 20]. 다만, 교사가 느끼는 행복감이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21].

둘째, 교수 효능감, 교사 행복감이 교사-유아, 유아-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효능감이 교사 행복이 더해질 때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행복감도 높을 때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교사의 행복감이 높고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진다는 연구[16]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유아들을 돌보고 가르침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고 계발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내적 특성으로 관련 있는 교수 효능감과 교사의 행복감을 함께 투입에 이들 변인에 따른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사의 내적 특성인 교수 효능감과 교사의 행복감이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수 효능감과 교사 행복감을 동시에 향상시켜야만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의미있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수 효능감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사가 자신의 행복감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보육·교육 기관에 따른 변인을 차별화 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과 행복감이 교사-유아, 유아-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교수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행복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에 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E. S. Moon and M. H. Mo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interac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eer play interaction, early childhood happiness and childhoo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41, No. 6, pp. 261-283, 2021. DOI : 10.18023/kjece.2021.41.6.011

[2] S. J. Hwang and S. L. K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Psychological Burnout,"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 305-312, 2020.

- [3] S. Y. Choi and H. Y. Shin. "Effects of Children's Playfulnes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n Their Peer Interaction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KACCCE)*, Vol. 11 No. 2, pp. 311-329, 2015. UCI : G704-SER000010 376.2015.11.2.013
- [4] J. H. Lee and S. L. K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 429-436, 2020.
- [5] de Kruijf, R. E., McWilliam, R. A., Ridley, S. M., and Wakely, M. B. "Classification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5, No. 2, pp. 247-268, 2000.
- [6] J. H. Lee and H. R. Yu.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Teacher-Child Interaction Perceiv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HSS)*, Vol. 22, No. 4, pp. 459-480, 2021. DOI : 10.15818/ihss.2021.22.4.459
- [7] Y. A. Kwon and S. B. Lee. "Effect of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child interactions on the child's social skill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 26, No. 2, pp. 115-129, 2017. DOI : 10.17643/KJCE.2017.26.2.06
- [8] Phillips, D., McCartney, K., and Scarr, S.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No. 4, pp. 537, 1987.
- [9]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 1977.
- [10] M. S. Choi and D. H. Joo.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4, pp. 239-256. 2015. UCI : G704-000819.2015.22.4.015
- [11] Y. K. Moon and S. N. Choi.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 Child Interaction,"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5, No. 2, pp. 1-20, 2015. UCI : G704-SER000008863 .2015.15.2.007

- [12]S Yoon, J. “Teacher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tress, negative affect, and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30, No. 5, pp. 485–493. 2002.
- [13]Erdem, E., and Demirel, Ö. “Teacher self-efficacy belie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35, No. 5, pp. 573–586. 2017.
- [14]Hamre, B. K., Pianta, R. C., Downer, J. T., and Mashburn, A. J. “Teachers’ perceptions of conflict with young students: Looking beyond problem behaviors,” *Social Development*, Vol. 17, No. 1, pp. 115–136. 2008.
- [15]Lyubomirsky, S.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New York: Penguin Group, 2008.
- [16]S. Y. Shim and S. A. Lim. “The influence of preschool teachers’ happiness and self-efficac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8 No. 1, pp. 319–340, 2018. DOI : 10.18023/kjece.2018.38.1.013
- [17]H. E. Hwang and H. M. Kang and J. H. Tak. “The Meditating Effect of Positive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or and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1, pp. 341–363, 2014. UCI : G704-000814.2014.18.1.009
- [18]Katz, L. G. “Talks with teachers of young children: A collection,” *Norwood, NJ*: Ablex, 1995.
- [19]A. S. Shin and Y. S. Kim. “Effects of Infant–Teacher’s Sensibility, Professionalism, and Happiness o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3, pp. 7–34, 2016. UCI : G704-002073.2016.20.3.003
- [20]H. S. Park. “The effects of teachers’ happiness and empathy on teacher–children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2, No. 1, pp. 117–133, 2017. DOI : 10.16978/ecec.2017.12.1.006
- [21]M. Y. Song, S. Y. Ryu and B. S. Le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happiness and child–peer play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7, No. 4, pp. 273–295, 2017.